

환경미학적 관점에서 본 도시 가로수의 시각 경험

박소영*,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 서론

도시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가로수를 지나친다. 거리의 나무는 도로나 전봇대, 가로등과 같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살아 있는 생물이라는 점에서 그것들과 다르다. 가로수는 인간이 도시에 체계적으로 도입한 ‘녹색 자연’으로서 우리와 결을 맞대고 살아간다. 가로수의 경험은 도시에서 자연과 인간이 관계 맺는 하나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환경미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가로수를 지각하는 방식(mode)을 조사하여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고찰하고 인간과 비인간(non-human)이 얽힌 장으로서 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시민 인터뷰를 토대로 기술적 미학(descriptive aesthetics)을 시도한다. 기술은 “어떤 환경에 대한 경험의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하고 간과된 특질을 포착하는 미학의 방법”(Berleant, 1992)으로서, 이 연구는 5명의 시민 대상 심층인터뷰¹⁾를 통해 평범한 일상에서 가로수를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특질을 기술하고 가로수에 대한 미적 지각과 경험 방식을 해석한다. 해석의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 이동에서 도시민은 식물맹의 경향을 띠며 정적 대상으로서 가로수는 지각 경험에서 배제된다. 둘째, 인간은 가로수를 도시 경관 속 기하학적 구성 요소로서 관조한다. 그러나 구체적 물성을 가진 가로수는 완전히 추상화되지 않고 도시의 기하학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절이라는 전지구적 기후 변화에 따른 가로수의 개화, 개엽, 낙엽, 단풍, 낙과 등 자연 현상을 공감각적으로 경험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도시에서 좁게는 가로수라는 비인간-생물, 넓게는 기후에 미적으로 참여한다.

2. 정물로서 가로수와 식물맹

가로수는 거의 언제나 우리의 시야 안에 있다. 가로수는 도로 체계에 통합된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로수는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있는 것”(연구참여자 D)²⁾,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C)으로 아주 익숙한 존재다. 그러나 나무는 연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제자리에서 녹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튀는’ 가계의 간판이나 건물(B), ‘생겼다 없어지는 잡초’(D), ‘피었다 지는 코스모스’(E)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다. 가로수는 화려하지도 크게 변화하지도 않는 고정된 사물로서 지각적 관심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가로수 지각은 식물학자 제임스 원더시(James Wandersee)와 엘리자베스 슈슬러(Elizabeth Schussler)가 지적한 ‘식물맹(plant blindness)’과 일치한다. “대부분의 식물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제된다”(Balding and Willams, 2016).

게다가 길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나무와 달리 인간은 목적과 속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동한다. ‘목적이 있으니까 한 점만 보고’(E), ‘[나를] 위협하는 것 이외에는 안 보고 앞만 보고’(B) 가는 인간이 나무를 의식적으로 지각하기란 어렵다. 목적지를 향해 내달리는 여행객은 “더는 그 사이의 가로수처럼 되는 공간들과는 관계하지 않게”(Schivelbusch, 1999) 되므로 식물맹의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고정된 가로수는 직선운동을 하는 인간에게 ‘눈에 띄지 않는 배경’으로 주변화되어 지각 경험에서 배제된다. 이동하는 식물맹에게 가로수는 시야에 있어도 지각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가로수는 비미적인 것(the non-aesthetic)이다.

3. 도시 경관 속 기하학적 자연

시야 속에 가로수가 포착될 때 그것은 도시 경관의 일부로 나타난다. 도로에서 조망한 가로 경관은 ‘풍경화’와 같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이며 가로수는 풍경화 속 전경의 구성 요소로 관찰된다(C). 도로를 조망하는 인간은 도로 폭만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로수를 바라보게 된다. 지각 주체와 대상 사이 거리는 버스나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더욱 멀어진다. 나아가 차량의 내부 환경은 바깥의 기후와 다르게 통제되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은 분리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각 이외 신체 감각은 배제되며 도시 경관은 (창틀에 담긴) 장면 혹은 풍경으로서 철저히 시각적 차원에서 지각된다. 즉 가로수는 시각적 대상으로서 ‘관조’된다.

이러한 지각 조건 속에서 가로수는 도시의 기하학을 선명하게 만든다. 가로수는 “길을 선으로 표시”(C)하고 “경로를 안내”(A)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로수의 배열은 인간과 차량의 진행을 시각적으로 유도한다. 연속적으로 배열된 가로수는 움직이는 장면, 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감각”을 선사하고 인간은 “가로수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쪽 이어지는 선형적인 덩어리”를 응시한다. 조망된 경관 속에서 가로수는 “선이나 면”(C)의 추상적 요소로 환원되며 도시의 기하학적 형식을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그러나 “덩어리”인 가로수는 완전히 추상화되어 지각되기 어렵다. “꽃이 풍성하게 있다거나 잎이 무성할 때... [나무가] 높이도 높고 입체적으로 있다

1) 인터뷰 방법 및 인터뷰를 토대로 한 미적 기술은 박소영의 조경학석사학위논문 『도시 가로수의 경험에 대한 환경미학적 연구』 III장에 상술되어 있다.
2) 인용어에 후행하는 알파벳은 5명의 연구참여자에 부여된 코드(A-E)로서 해당인의 가로수의 경험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인용할 경우 사용한다.

보나(C) 가로수는 특유의 “부피(E)와 “결(C)을 가진 ‘촉각적 경관(tactile landscape)’으로 지각된다. 합리적으로 계획된 인공물의 표면과 대비되는 “자연스러운” 가로수의 질감과 양감은 “주변 환경에 불러 처리”를 해준다(E). 심지어 전정을 통해 가로수가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게 된다면 “[나무가 건물과 같이] 규격화되어서 그 경계가 잘 보이니까 답답함(E)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미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가로수는 한편으로 도시의 축선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부드럽게 지각되도록 한다.

4. 기후에 대한 공감각적 참여

가로수를 지각하게끔 하는 가장 큰 변인은 날씨와 계절 등 기후의 변화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가로수는 계절마다 독특한 특질을 가지며 도시 경관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다. 도시민은 “가로수가 심어진 길에서 계절이 변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다”(B). “식물이 온도 변화에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식물의 달라진 외관을 살펴보는 것이 계절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A). 특히 우리는 봄의 햇빛, 가을의 낙엽과 단풍,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지각을 통해 계절 변화를 실감한다. 평소 간과되거나 피상적으로 지각되던 가로수는 계절 변화와 함께 감상의 대상으로서 미적 지위를 획득한다.

이때 가로수 지각은 보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꽃 피는 봄에... 햇빛이 휘날리는 체험”(C),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는 냄새 나는 은행나무 열매를 밟는 경험’(B), ‘썩은 바삭바삭한 낙엽을 일부러 밟는 경험’(A, B)에서 지각 주체는 시각적 광경 ‘보기’를 넘어 환경을 공감각적으로 ‘느낀다’. 가령 낙엽이 지는 거리를 걸을 때 도시민은 바람과 함께 사르르 날아가는 낙엽의 이미지뿐 아니라 바스락거리는 낙엽의 촉감과 소리, 낙엽의 향미가 섞인 개운한 공기가 한데 뒤섞여 신체로 침투하는 것을 느낀다(B). 이러한 감각들은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조각적 구분이 무색하게 복합적으로 지각된다. 기후에 따른 가로수의 공감각적 경험은 “진정한 공감각, 감각들의 완전한 연합”으로서 참여(engagement)의 경험 방식과 합치된다(Berleant, 1992). 가로수는 멀리 있는 평면적 대상이 아니라 눈, 코, 입, 가슴, 피부 등 신체로 파고드는 실체로서 주체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가로수에 대한 공감각적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가? 들숨에 낙엽 냄새와 섞여 들어오는 서늘함은 가로수의 특질인가? 공기의 특질인가?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는 가로수만의 특질인가? 계절에 따른 가로수의 감각 특질은 기후 및 날씨 현상에 통합되어 발생한다. 공감각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가로수라는 유기체에, 그와 함께 속한 미기후에, 미기후에 작용하는 전지구적 기후 변화로서 계절과 연결된다. 즉 인간은 가로수라는 유기체의 생명 현상과 날씨, 계절이라는 자연 현상의 연속체로서 도시에서 기후에 미적으로 참여한다.

5. 결론

이 연구는 시민의 일상 경험에 토대한 기술은 가로수가 분명히 도시적 삶에 제공하는 미적 질감을 포착하고 인간이 가로수를 경험하는 주요 방식을 밝혔다. 가로수는 인간의 끊임없는 이동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도로 체계에 배치된 자연이다. 움직이지 않는 식물인 가로수는 도로를 관통하는 인간에게 쉽게 비가시화된다. 도시민에게 지각되지 못하는 가로수는 비미적인 것으로서 생물의 자율적 특성이 완전히 소거된 정적인 대상(object)이다. 한편 가로수는 도로를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 경관의 구성 요소로 포착된다. 일직선상의 가로수 대열은 도로의 기하학적 형식을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그러나 살아 있는 나무의 물적 특질(thingly quality)로 인해 보이는 경관은 납작한 평면이기보다 촉각적 경관이다. 가로수의 물적 특질은 기후 변화에 연동된 가로수의 생명 현상(개화, 개엽, 단풍, 낙엽, 낙과 등)과 함께 시각적 스펙터클을 넘어 도시민에게 공감각적으로 지각된다. 계절 변화에 따른 공감각적 경험에서 가로수는 생동하는 사물(thing)이자 지각 주체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공감각적 참여를 통해 도시의 인간은 전지구적 기후 변화인 계절에 참여하는 더 큰 자연 현상의 일부가 된다.

인류학자 팀 잉골드(Tim Ingold)에 따르면 “도로는... 삶이 전개되는 길이기보다 삶을 둘러싸는 경계를 만든다”(Ingold, 2009). 인간의 지각 속에서 가로수는 때로는 부동의 대상으로 경계를 짓지만, 때로는 생동하는 존재로서 경계에서 꽃 피우고 잎을 내고 낙엽을 드리우며 인간이 공감각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박소영(2022) 도시 가로수의 경험에 대한 환경미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연구참여자 A, 미술이론 전공 대학원생, 서울특별시 거주, 2022년 5월 15일 심층인터뷰.
3. 연구참여자 B, 초등교사, 서울특별시 거주, 2022년 5월 16일 심층인터뷰.
4. 연구참여자 C, 조경학 전공 대학원생, 대구광역시 거주, 2022년 5월 17일 심층인터뷰.
5. 연구참여자 D, 예술계 직장인, 태안군 거주, 2022년 5월 15일, 19일 심층인터뷰.
6. 연구참여자 E, 임업직 공무원, 공주시 거주, 2022년 5월 17일 심층인터뷰.
7. Balding, M. and K. Williams(2016) Plant blindness and the implications for plant conservation. Conservation Biology 30(6) : 1192-1199.
8. Berleant, A.(1992) Descriptive Aesthetics.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p. 25-39.
9. Schivelbusch, W.(1999) 철도여행의 역사: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서울: 궁리.
10. Ingold, T.(2009) Against Space: Place, Movement, Knowledge.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London: Routledge.